

보도 일시	2021. 11. 1.(월) 18:00	배포 일시	2021. 11. 1.(월) 09:00
담당 부서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책임자	과장 조상준 (044-203-3151)
		담당자	사무관 윤숙일 (044-203-3153)

문체부 장관, '단계적 일상 회복'맞이 야구장 현장 찾아

- 11. 1. 잠실 야구장에서 관중 입장 규모 확대에 따른 방역 상황 등 점검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11월 1일(월) 오후 6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이해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이 열리고 있는 잠실 야구장을 찾아가 관중 입장 규모가 확대된 현장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10월 18일(월)부터 31일(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경기장 전체 좌석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11월 1일(월)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좌석의 50%까지 관중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백신 접종자 구역을 운영할 수 있다. 백신 접종자 구역은 일반 구역과 달리 입장 규모 제한과 다른 일행 간 띄어 앉기 등의 방역 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백신 접종자 구역은 입장하는 문과 동선 등이 다른 구역과 엄격하게 구분되고, 실외 경기장의 백신 접종자 구역에 한정해 음식물도 섭취할 수 있다.

이에 황희 장관은 한국야구위원회(KBO) 정지택 총재, 두산베어스 전풍 대표이사, 키움히어로즈 허홍 대표이사를 만나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달라진 현장 상황에 대해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이후 ▲ 경기장 내 마스크 착용, ▲ 입장 대기 및 공용시설 이용 시 거리두기 등 잠실 야구장의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황희 장관은 “오랫동안 스포츠 경기가 무관중으로, 또는 관중을 제한해 열려 업계의 피해가 컸는데, 올해는 경기가 종료되기 전에 더욱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문체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아 프로스포츠 관람 할인권을 배포하고, 관련 단체와 경기장의 방역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스포츠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